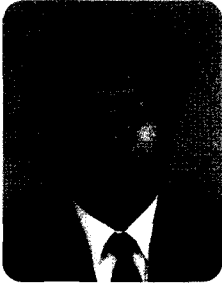


사철나무



최명섭 임업연구원

- ▶ 과명 : 노박덩굴과
- ▶ 학명 : *Euonymus japonica*
- ▶ 영명 : Evergreen Euonymus,
Evergreen Buring Bush
- ▶ 한명 : 和杜食, 恩仙木, 冬靑
- ▶ 일명 : まちき

국내에 자생하는 수목중 서울을 중심으로한 중부지방에서 겨울에도 의연하게 푸르름을 나타내는 나무들은 침엽수인 소나무, 잣나무, 측백나무, 향나무, 노간주나무를 제외한 상록활엽수는 몇종이 되지 않는다. 드물기는 하지만 추위에 견디어 우리곁에 조경용으로 식재되어있는 수종으로 호랑가시나무, 사철나무등이 그것이다.

사철나무는 황해도, 경기도,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도의 서해안 해안변과 섬지방의 큰나무아래 자라며 분포 영역은 매우 넓다. 남쪽 섬지방에 자라는 후박나무, 동백나무, 가시나무류 등 늘푸른 상록활엽수가 많으나 사철나무라고 이름 붙여진것으로 보아 상록수를 대표하는 나무가 아닐까 싶다. 가을이면 달리는 열매는 매우 특이하여 둥글기도 모가 나기도 한 불그스름한 열매가 익으면 열매의 껍질이 네 개로 갈라지고 그 사이로 맑고 밝은 주황색의 옷을 입은 종자가 나온다. 벌어진 틈으로 매달린 종자의 모습이 녹색의 잎새와 잘 어울리며 겨울철 새들의 먹이로 좋을듯 싶다.

1. 생태적 특성

중부이남의 해변에 자생하며 정원수로 둥글게 전정하여 식재하고 있는 상록활엽관목으로 보통 높이 3m까지 자라지만 경우에 따라 6m까지 자라는 것도 있다. 지리적으로는 만주, 중국, 일본에 분포한다. 해풍과 염기에 강하여 바닷물과 접하여도 피해를 입지 않으며



▲ 사철나무



▲ 사철나무

그늘에서도 강하여 큰나무 아래서도 무리지어 자란다. 수세가 강건하며 중성식생으로 건조지나 습지에서도 잘 견디며 맹아력이 좋아 공해에 대한 저항성도 좋고



▲ 사철나무

대기오염에 대한 저항성이 매우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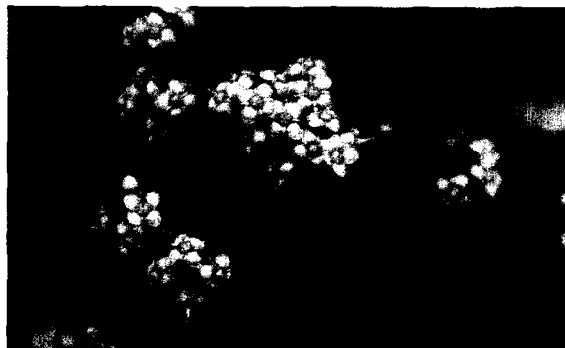
2. 형태적 특성

줄기는 직립하지만 가지가 많이 나와 굵게자라고 줄기가 많이 나서 수관이 퍼지며 어린가지는 녹색이다. 곳에 따라서 외대로 자라기도 하나 보통 여러개의 줄기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 잎은 마주나고 길이 3~7cm, 넓이 3~4cm의 긴 타원형으로 광택이 있고 짙은 녹색이다. 꽃은 양성(兩性)으로 줄기와 잎자루 사이에서 취산화서(聚散花序)에 달려 6~7월에 순백색 꽃이 피며 열매는 지름 8~9mm로 둥글고 10월에 엷은 홍색으로 익는다.

유사종으로는 잎은 타원형이고 길이 5.0~7.5cm인 것을 무른나무(var. macrophylla), 잎의 길이 6~9cm, 넓이 2.0~3.5cm인 것을 긴잎사철나무(var. longifolia), 잎의 주변에 흰 줄 무늬가 있는 것을 은테사철(for. albomarginata), 잎에 황색반점이 있는 것을 금사철(for. aureo-variegata), 잎 가장자리가 황색인 것을 금테사철(for. aureo-marginata), 잎에 황색과 녹색의 반점이 있는 것을 황록사철(for. viridi-variegata)이라 한다.

3. 조경수로서의 활용

정원이나 공원등에 정형으로 전정하여 원추형이나 원형으로 만들어 한그루씩 식재하거나 울타리변에 열식으로 식재하여 은폐목적으로 식재한다. 수형 조절이 자유롭기 때문에 동물의 형태나 그외 상징적인 형태의 Topiary원을 만드는 기초 소재로 이용하기도 하며 얇고 막한 바람막이에도 적당하므로 방풍수로 심기도 하고 밑물이 스미는 해변가에서도 잘 자라므로 해안 지대의



▲ 사철나무

정원수로도 좋다. 먼지나 대기오염에도 저항력이 높아 도심지나 공장 지대, 도로변의 울타리용으로도 알맞은 나무이다.

수요는 많은 편이고 재배나 번식이 쉬워 고급정원수에 속하지는 않으나 시장성이 넓어 재배 할만하다.

4. 번식법

번식은 종자 파종과 삽목에 의한다.

○ 파종

9~10월에 익은 종자를 채취하여 겉껍질을 벗기고 직파하거나 기건저장하였다가 파종 1개월전에 젖은 모래와 섞어 땅속에 묻었다가 파종하면 되나 일반적으로 삽목번식을 이용하는것이 편리하다.

○ 삽목

봄 싹트기 전과 장마때, 그리고 시설이 되어 있는 곳에서는 가을의 9~11월까지 꺾꽂이 할 수 있다. 삽수는 봄에 삽목할 경우는 지난 해 가지를 잘라 쓰며 여름과 그해 가을에 자란 가지에 지난해 자란 굵은 가지의 일부를 붙여 쓴다. 굵은 정도는 가지를 꺾어 봐서 딱 꺾어지며 한쪽 겹질이 겨우 붙어 있는 정도로 굵은 것이 좋다. 길이는 10cm정도로서 세 마디 정도 붙으면 된다. 밑쪽 잎은 따내고 남은 잎은 반 정도 잘라 버리고 모래나 진흙에 1/3 정도 묻히게 꽂는다. 삽목상은 반그늘지게 햇빛을 가려주고 새싹이 3cm정도 자라면 분발에 이식, 비배 관리하여 키운다.

5. 그 밖의 용도

한방에서는 껍질을 왜두충(倭杜食)이라 하여 이노, 강장제로 사용하며 겨울철 늘 푸른잎을 단 가지는 꽃잎이 소재로 이용하기도 한다. **조경수**